

#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과 초월감의 매개효과

##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s and Mediation Effect of Transcendence

안지원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Ji Won An(anjiwon7@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162명이었으며, 자료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월감,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은 성공적 노화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력은 77%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초월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노년기의 초월감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성공적 노화 | 초월감 | 지역사회 노인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nd to determine mediating effect of transcendence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ty-dwelling elders in Korea. 162 elde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o visited seniors welfare center and senior citizen center. Data were analyzed by PASW 18.0 for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ranscendence, parent-child relationship, depression, spirituality and perceived economic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explained 77% of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The mediating role of transcendence was identified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depression, spirituality and perceived economic condition.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d that transcendence was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successful aging. The variables affecting successful aging such as transcendence, parent-child relationship, depression, spirituality, perceived economic status can be utilized for nursing strategies to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s.

■ **Keyword** : | Successful Aging | Transcendence | Community-dwelling Elders |

\* 본 논문은 안지원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보완 작성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30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30일

교신저자 : 안지원, e-mail : anjiwon7@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당시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14.5%, 2026년에는 20.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1].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고령자의 건강요구와 돌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3].

최근에는 노인을 사회적으로 생산능력을 잃은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삶과 생산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이 주목을 받으면서[4]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연장된 노년기 삶 동안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는 것이며[5],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3].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6][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

노년기는 건강악화, 직장에서의 은퇴, 생산성의 저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하여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점차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 범위가 축소되고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 우울 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은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신체적 쇠약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 은퇴,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서 오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우울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성공적 노화 증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8].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 속에

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추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9][10].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관계의 중심이 변화되는데 한국 문화의 특성상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중심의 지지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건이다. 부부관계는 남은 여생을 서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성공적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11][12][42].

또한, 노년기는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며, 신체적 허약감과 질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죽음을 앞두고 생을 회고 하며 죽음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기로써 다른 어느 연령대 보다 영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13]. 긍정적인 영성은 노인으로 하여금 단체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행위를 하도록 지지해준다. 또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고통으로부터 정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안녕감을 주는 등 성공적 노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3][14][43].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적응으로 자기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성공적인 노화과정을 이루게 하며 노인의 안녕감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초월이라는 개념이 있다[15]. 자기초월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 극복의 일환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며[16], 노인이 자신의 삶과 노화과정,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노화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노년초월은 삶의 만족도와 생의 의미를 증가시켜주는 요인이며 죽음불안의 감소, 의미있는 활동에의 참여, 관계 변화, 자기수용, 지혜를 통해 반영된다[17].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을 9단계로 확장시킨 이론에서도 마지막 단계의 발달

특성을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역할상실, 고립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성숙시키고 보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18].

이러한 측면에서 Flood[3]의 성공적 노화 이론(successful aging theory, SAT)에서는 초월감을 성공적 노화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SAT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대처과정들이 단순한 것에서 점차 복잡함 적응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노화로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초월감의 형성이 성공적 노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적 기능과 건강을 상실한 상태일지라도 적응과 대처를 통해 초월감을 형성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초월감이 신체, 정신, 영적 건강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Flood[3]의 SAT 이론은 신체, 정신, 영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간호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초월감은 성공적 노화 이론들에서 간과되었던 개념이었지만 통합적 인간 간호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

이와 같이 초월감은 죽음을 앞둔 노년기에 질병이나 신체적 제한 등을 뛰어넘어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초월적 세계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성공적 노화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기능[9][19], 우울[8][9][20], 인지기능 및 자기효능감[10]이, 사회적 영역에는 가족관계를 통한 사회적지지[11][12][20] 및 여가활동[21]이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월감을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를 살펴보면, McCarthy[18]는 초월감이 성공적 노화를 51%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은주와 김영희[2]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으로 초월감, 대처행동, 종교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중 초월감은 성공적 노화의 52%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많은 연구들이 성공적 노화의 변인들을 확인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공적 노화의 다차원적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지는 못하며, 영적 측면과 초월감을 포함한 성공적 노화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요소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는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6][7], 초월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신체적, 심리적, 영적 측면을 포함한 일상생활 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기효능감,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영성, 초월감을 변인으로 고려하였으며, 관련 변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 우울, 자기효능감, 배우자 관계, 자녀관계, 영성, 초월감,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와 D시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노인으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장수대학 등을 방문하여 기관장으로부터 본 연구 참여에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회귀분석에 투입할 독립변수 8개로 분석한 결과 160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감안하여 180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65세 이상 남녀 노인
- 2)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자
- 3) 현재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
- 4)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 5)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3. 연구 도구

### 3.1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로 '많이 안 좋다'에서 '매우 건강하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 3.2 일상생활활동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Won 등[23]이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자서 할 수 있음' 1점, '약간의 도움필요' 2점, '전적으로 도움필요' 3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7-21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Won 등[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이었다.

### 3.3 우울

대상자의 우울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ikh과 Yesavage[24]가 개발한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GDSSF)를 Kee[25]가 번안한 한국판 노인 우울검사(GDSSF Korea Version, GDSSF-K)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점 0점에서 1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Kee[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이었다.

### 3.4 자기효능감

Schwarzer과 Jerusalem[26]이 개발한 General Self - Efficacy Scale(GSE)을 박경민[27]이 번안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민[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 3.5 배우자 관계

배우자관계는 정현숙[28]이 개발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 중 '존중' 8문항과 '상대방 배려' 8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존중과 상대방 배려가 각각 Cronbach's  $\alpha$ =.93과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96과 .96,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8이었다.

### 3.6 자녀 관계

자녀관계는 한동희[29]의 자녀와의 유대관계 척도를 유민지[30]가 수정,보완한 성인자녀관계 8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민지[30]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3.7 영성

영성은 Reed[15]가 개발한 Spiritual Perspective Scale(SPS)을 Kim 등[31]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의 영적 관점과 실생활에서의 수행빈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일 한다/매우 동의한다' 6점까지 Likert 척도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평균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영적 관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도구를 함께 제공받았다. Kim 등[3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이었다.

### 3.8 초월감

초월감은 Reed[15]가 개발한 Self- Transcendence Scale(STS)을 Kim 등[31]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기수용, 변화에 대한 적응, 죽음의 수용, 지혜 등을 묻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초월감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의 사용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도구를 함께 제공받았다. Kim 등[3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 3.9 성공적 노화

김동배[32]에 의해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며 자율적 삶 9문항, 자기완성 지향 6문항, 적극적 인생참여 5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5문항, 자기수용 3문항, 타인수용 3문항으로 총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연구자와 4명의 훈련된 보조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에 따라 읽고 쓰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많은 설문 문항으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1:1 면담을 통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응답하도록 도와주었다. 총 180명의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일부 항목에서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18부를 제외한 1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 시행되었다(HY-14-042).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참여 중단가능성, 연구 참여로 인한 혜택이나 위험 등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대상자가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명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피로감이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고 설문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측정변수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3)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Sobel

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는 남자 100명(61.7%), 여자 62명(38.3%)으로 총 162명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6(±5.8)세였으며 70-79세가 67명(41.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69명(42.6%), 종교는 있는 경우가 112명(69.1%), 직업은 없는 경우가 112명(69.1%), 주관적 경제수준은 중이 117명(72.2%)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 ( $F=8.105, P<.001$ )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성공적 노화 (N=162)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공적 노화	
			M ± SD	t or F (p)
성별	남자	100(61.7)	3.10±.44	-.359 (.720)
	여자	62(38.3)	3.13±.44	
연령	69세 이하	74(45.7)	3.13±.45	.707 (.348)
	70-79세	67(41.3)	3.08±.42	
	80세 이상	21(13.0)	3.15±.50	
학력	초졸이하	23(14.2)	3.00±.53	.757 (.340)
	중졸	22(13.6)	2.96±.42	
	고졸	69(42.6)	3.05±.37	
	대졸이상	48(29.6)	3.14±.43	
종교	유	112(69.1)	3.11.43	-.012 (.991)
	무	50(30.9)	3.11±.46	
직업유무	유	50(30.9)	3.09±.40	-.467 (.641)
	무	112(69.1)	3.13±.46	
주관적 경제수준	상	8(4.9)	3.33±.44a	8.105 ( $<.001$ )
	중 하	117(72.2) 37(22.9)	3.18±.40ab 2.88±.47b	

a,b: scheffe's test

#### 2.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의 서술적 통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평균 3.10(±0.87)점, 일상생

활활동은 7.17(±1.15)점이었다. 우울은 5.23(±3.43)점이었고, 초월감은 평균 3.04(±0.52)점, 성공적 노화는 3.12(±0.44)점이었다.

표 2.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구분	평균 ±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건강상태	3.10 ± 0.87	1	5
일상생활활동	7.17 ± 1.15	7	17
우울	5.23 ± 3.43	0	15
자기효능감	2.88 ± 0.54	1	4
배우자 관계	3.54 ± 0.92	1	5
자녀 관계	3.79 ± 0.75	1	5
영성	3.78 ± 1.58	1	6
초월감	3.04 ± 0.52	1.6	4
성공적 노화	3.12 ± 0.44	2	4

#### 3.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공적 노화는 건강상태( $r=.29, p<.001$ ), 우울( $r=-.48, p<.001$ ), 자기효능감( $r=.58, p<.001$ ), 배우자 관계( $r=.51, p<.001$ ), 자녀관계( $r=.57, p<.001$ ), 영성( $r=.32, p<.001$ ), 초월감( $r=.83, p<.001$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월감은 건강상태( $r=.27, p<.001$ ), 일상생활활동( $r=.27, p<.001$ ), 우울( $r=-.46, p<.001$ ), 자기효능감( $r=.56, p<.001$ ), 배우자관계( $r=.44, p<.001$ ), 자녀관계( $r=.43, p<.001$ ), 영성( $r=.33, p<.001$ )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성공적 노화에 차이를 나타냈던 주관적 경제수준을 포함하여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 우울, 자기효능감,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영성, 초월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56-.92였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8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84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초월감,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표 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N=162)

구분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	우울	자기효능감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영성	초월감
	r(p)							
일상생활활동	-.14							
우울	-.37***	.14						
자기효능감	.20*	.18*	-.38***					
배우자관계	.29***	-.11	-.29***	.32***				
자녀관계	.22**	.10	-.14	.37***	.52***			
영성	-.02	-.05	.03	.26**	.04	.12		
초월감	.27***	-.27***	-.46***	.56***	.44***	.43***	.33***	
성공적노화	.29***	-.11	-.48***	.58***	.51***	.57***	.32***	.83***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N=162)

구분	B	SE	$\beta$	t	p	VIF
초월감	.51	.04	.60	11.86	<.001	1.80
자녀관계	.15	.03	.26	6.21	<.001	1.26
우울	-.02	.01	-.17	-3.92	<.001	1.34
영성	.02	.01	.09	2.13	.034	1.19
주관적 경제수준	-.07	.04	-.08	-2.09	.039	1.09
adjusted R <sup>2</sup>				.77		
F				110.97		
p				<.001		

표 5.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에서 초월감의 매개효과

(N=162)

종속변수	매개변수	독립변수	단계	B	SE	$\beta$ (p)	F (p)	R <sup>2</sup>
성공적 노화	초월감	자녀관계	1단계	.29	.05	.43 (<.001)	35.84 (<.001)	.18
			2단계	.33	.04	.57 (<.001)	76.11 (<.001)	.32
			3단계(독립)	.15	.03	.26 (<.001)	238.75 (<.001)	.75
			3단계(매개)	.62	.04	.72 (<.001)		
		우울	1단계	-.07	.01	-.46 (<.001)	42.87 (<.001)	.21
			2단계	-.06	.01	-.48 (<.001)	48.23 (<.001)	.23
			3단계(독립)	-.02	.01	-.12 (.011)	192.64 (<.001)	.71
			3단계(매개)	.66	.04	.78 (<.001)		
		영성	1단계	.11	.02	.33 (<.001)	19.43 (<.001)	.11
			2단계	.09	.02	.32 (<.001)	18.62 (<.001)	.10
			3단계(독립)	.02	.01	.05 (.241)	184.06 (<.001)	.70
			3단계(매개)	.70	.04	.82 (<.001)		
주관적 경제	1단계	-.24	.08	-.23 (.004)	8.71 (.004)	.05		
	2단계	-.26	.07	-.30 (<.001)	15.55 (<.001)	.09		
	3단계(독립)	-.10	.04	-.11 (.011)	192.80 (<.001)	.71		
	3단계(매개)	.69	.04	.81 (<.001)				

은 77%였다[표 4].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월감( $\beta=.60, p<.001$ )이었고, 다음은 자녀관계( $\beta=.26, p<.001$ ), 우울( $\beta=-.17, p<.001$ ), 영성( $\beta=.09, p=.034$ ), 주관적 경제수준( $\beta=-.08, p=.039$ ) 순이었다. 즉, 초월감이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영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초월감의 매개효과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초월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3]의 3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자녀관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초월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녀관계가 매개변수인 초월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3, p<.001$ ), 2단계에서는 자녀관계가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57, p<.001$ ). 3단계에서는 자녀관계( $\beta=.26, p<.001$ )와 초월감( $\beta=.72, p<.001$ ) 모두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자녀관계의 영향력( $\beta=.26$ )이 2단계( $\beta=.57$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초월감이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Z=5.43, p<.001$ ).

우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3단계 분석과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3단계 영향력이( $\beta=-.12$ )이 2단계( $\beta=-.48$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우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월감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Z=6.44, p<.001$ ).

영성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영성이 매개변수인 초월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3, p<.001$ ), 2단계에서는 영성이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beta=.32, p<.001$ ).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초월감만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82, p<.001$ ), 초월감이 영성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Z=5.24, p<.001$ ).

주관적 경제수준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3단계 분석 과정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의 영향력( $\beta=-.11$ )이 2단계( $\beta=-.30$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주관적 경제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초월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Z=2.96, p=.003$ ).

#### IV.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3.12(\pm 0.44)$ 점이었으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각된 경제 상태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9][34]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성공적 노화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시 경제적 상태와 관련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사회복지정책으로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월감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 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포함시켰을 때의 설명력은 77%였다. 또한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초월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lood[3]의 성공적 노화 이론에서 초월감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 정신적, 영적 요소 모두 초월감을 매개로 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McCarthy[18]의 연구에서는 초월감이 성공적 노화를 51% 설명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김은주와 김영희[2]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 중 초월감이 성공적 노화의 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두 선행연구 모두 Flood[3]의 이론을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초월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Flood의 이론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초월감을 연구변



수로 포함하는 선행연구들[35][36]에서도 초월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데에 초월감의 중요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초월감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35]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연령대보다 노인들에게 초월감은 성공적 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신체적 기능 쇠퇴와 사회적 고립감,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초월감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영숙 등[36]의 연구에서 자기초월가치는 노년기에 통합감을 형성하며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서 성공적 노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심사를 초월하여 타인이나 자연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즉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월감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초월감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주며 사회적 고립감, 주변인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뛰어 넘도록 해주어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으로 새로운 변인인 초월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아직 드물며, 본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초월감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그 학문적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한국 노인들이 인식하는 초월감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 실무에 적용 가능한 중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월감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이었다. 이는 전보영[34]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족 지지, 영적 안녕, 우울이 확인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자녀 관계는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이 확인 되었으며 선행연구들[11][36][37]과 일치하는 결과로 한국 노인들에게 있어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 중심적 지원망은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수정 등[9]의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상태, 연령이 확인되었고 관련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 설명력은 62.1%였다. 그 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지표로써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8][20][3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16.1%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대별 경험률 중에서 가장 높았다[1]. 우울은 자살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우울을 포함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영성은 초월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영성은 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자기초월로 인한 낙관적 관점을 갖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38]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들의 영적 안녕은 초월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1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물학적 능력이 감퇴하면서 건강이나 신체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가치를 덜 부여하며, 대신 긍정적 태도, 개인적 성장의 기회, 삶의 의미 등 내면적 측면에 보다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영성은 성공적 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39]. 또한, 영적 중재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효과크기에 대한 메

타분석 연구[40]에서 목회자나 심리사의 영적 중재보다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영적간호중재’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영적 중재는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비약물적 중재로써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적 요구가 증가하는 노년기에 성공적 노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과 더불어 영적 측면에서의 간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죽음과 상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상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이 불량해지는 위험을 악화시킨다[41].

통계청[1]의 2014년, 2015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0%로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이었다. 생활비에 보탬다는 이유는 전년에 비해 3.0%p 증가하였고, 연령대 중 가장 낮았던 고령자의 고용률이 2014년에 이어 20대를 추월한 것은 노인들이 안정적 경제상태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원하고 그것이 삶의 질 향상이나 성공적 노화로 연계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적 지원정책 및 고령자 고용 정책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초월감,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이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초월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

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으로 초월감,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확인되었고,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77%였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대사회에서 성공적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의 전생애주기에서 다측면적 건강증진이 목표인 간호에 있어서도 성공적 노화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영향요인들 즉, 초월감, 자녀관계, 우울, 영성, 주관적 경제수준을 포함한 간호중재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의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기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초월감을 매개 변인으로 포함하여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간호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노년기 초월감에 대한 개념과 중재 개발 등의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복지회관, 경로당, 장수대학 등 외부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노인으로 일상 생활활동 능력이 낮거나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1] <http://www.kostat.go.kr>
- [2] 김은주, 김영희, “Successful Aging Theory (SAT)에 근거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378-387, 2011.
- [3] M. Flood, “A mid-range nursing theory of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 Testing, Vol.9, No.2, pp.35-39, 2005.

- [4] M. B. Holstein and M. Minkler,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Vol.43, No.6, pp.787-796, 2003.
- [5] 김은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4호, pp.568-578, 2013.
- [6] T. D. Cosco, A. M. Prina, J. Perales, B. C. Stephan, and C. Brayne, "Operational definitions of successful aging: a systematic review," *Int Psychogeriatr*, Vol.26, No.3, pp.373-381, 2014.
- [7] E. A. Phelan, L. A. Anderson, A. Z. LaCroix, and E. B. Larson,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Vol.52, pp.211-216, 2004.
- [8] D. V. Jeste, G. N. Savla, W. K. Thompson, I. V. Vahia, D. K. Glorioso, A. S. Martin, B. W. Palmer, D. Rock, S. Golshan, H. C. Kraemer, and C. A. Depp, "Association between older age and more successful aging: critical role of resilience and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70, No.2, pp.188-196, 2013.
- [9] 한수정, 한진숙, 문영숙,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23-434, 2009.
- [10]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No.4, pp.433-440, 1997.
- [11] 윤현숙, 유희정,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pp.5-31, 2006.
- [12] 정여진, 안정신,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 대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185-206, 2012.
- [13] 김순이, 이정인, "재가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7권, 제3호, pp.480-489, 2013.
- [14] M. R. Crowther, M. W. Parker, W. A. Achenbaum, W. L. Larimore, and H. G. Koenig,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 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Vol.42, No.5, pp.613-620, 2002.
- [15] P. G. Reed, "Self-transcendence and mental health in oldest-old adults," *Nursing Research*, Vol.40, pp.5-11, 1991.
- [16] L. M. Wayman and H. L. Gaydos, "Self-transcending through suffering,"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Vol.7, No.5, pp.263-270, 2005.
- [17] L. Tornstam, "Gerotranscendence: The contemplative dimension of aging," *Journal of Aging Studies*, Vol.11, No.2, pp.143-154, 1997.
- [18] V. L. McCarthy, J. Ling, and R. M. Carini, "The role of self-transcendence: a missing variable in the pursuit of successful aging?,"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Vol.6, No.3, pp.178-186, 2013.
- [19] C. Depp and D. Jeste,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4, No.1, pp.6-20, 2006.
- [20] 신영희, 이혜정,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327-1340, 2009.
- [21] 김수현, 김윤정, "노년기 여가활동참여와 성공적 노화 인식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4호, pp.3-23, 2011.
- [22] F. Franz,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23] 원장원, 양금열, 노용균, 김수영, 이은주, 윤종률, 조경환, 신호철, 조비룡, 오정렬, 윤도경, 이홍순, 이영수,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측정도구 (K-ADL)와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K-ADL)의 개발," *노인병*, 제6권, 제2호, pp.107-120, 2002.
- [24] J. I. Sheikh and J. A. Yesavage,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y*, Vol.5, No.1/2, pp.165-173, 1986.
- [25] 기백석,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 신경정신의학, 제36권, 제6호, pp.1875-1883, 1996.
- [26] R. Schwarzer and M. Jerusalem,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Windsor, England: Nfer-Nelson.1995.
- [27] 박경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8] 정현숙,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205-224, 2001.
- [29] 유민지, 노년기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0] 한동희,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31] S. S. Kim, P. G. Reed, Y. Kang, and J. Oh, "Translation and Psychometric Testing of the Korean Versions of the Spiritual Perspective Scale and the Self-transcendence Scale in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2, No.7, pp.974-983, 2012.
- [32] 김동배,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pp.211-231, 2008.
- [3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34] 진보영,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산적 활동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5] 윤민석, "노화에 대한 재해석: 노년초월 이론과 9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pp.431-446, 2012.
- [36]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25권, 제1호, pp.19-41, 2012.
- [37] S. Torres,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of a culturally-relevant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18, No.1, pp.79-100, 2003.
- [38] W. J. Strawbridge, S. J. Shema, R. D. Cohen, R. E. Robert, and G. A. Kaplan, "Religiosity buffers effects of some stressors on depression but exacerbates 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Vol.53B, No.3, pp.S118-S126, 1988.
- [39] 정순화, 임정하,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인간발달연구, 제20권, 제4호, pp.59-79, 2013.
- [40] 오복자, 김영현, "영적중재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6호, pp.833-842, 2012.
- [41] 소희영, "ICF 모델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 예측 모형,"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4호, pp.481-490, 2011.
- [42] 김명숙, 고종욱,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46-259, 2013.
- [43]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 저 자 소 개

##### 안 지 원(Ji Won An)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정희원

- 2014년 9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희귀난치성질환자간호, 노인 건강증진